

다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로
다 다시,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로
다 다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다 다시, 사귄으로 하나되는 교회로
다 다시, 제자삼고 선교하는 교회로

물대풍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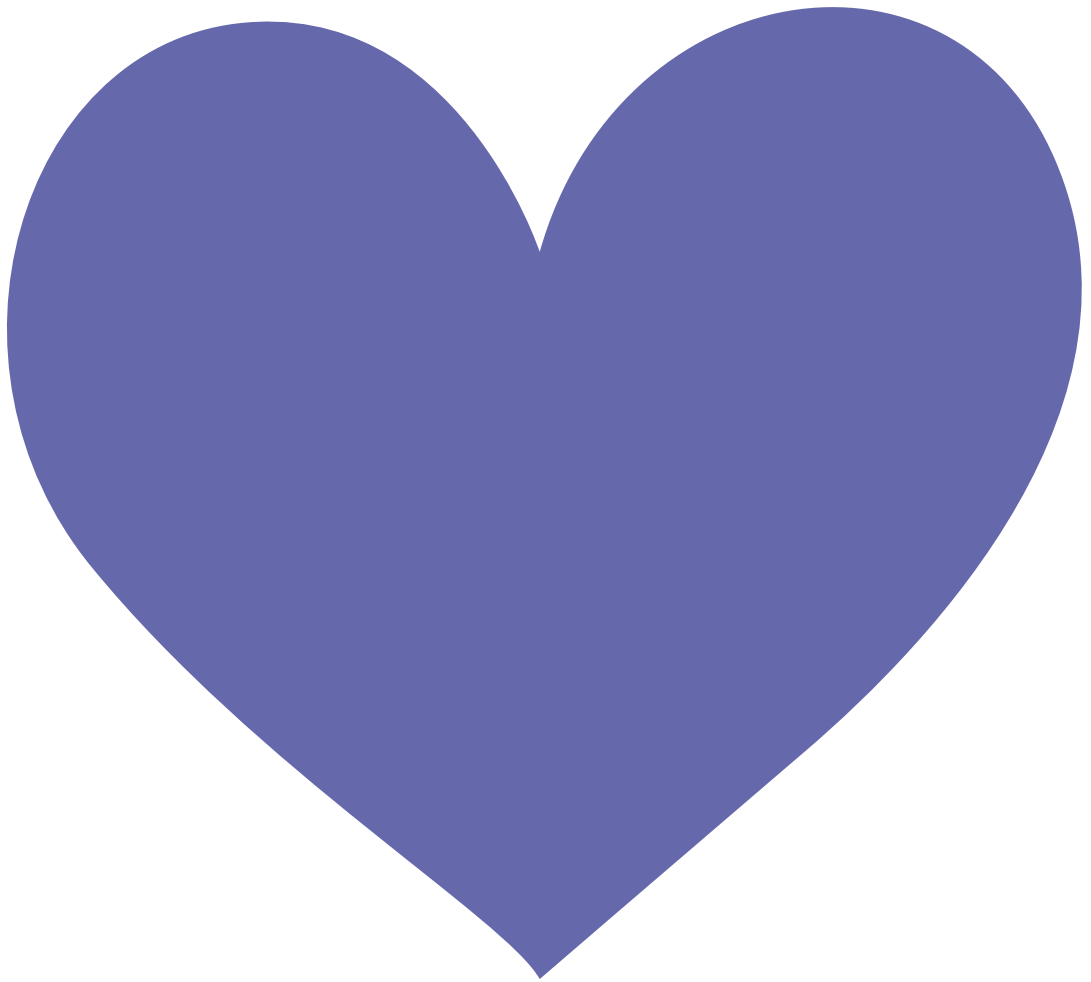
The Well-Watered Garden

Vol. 97 | 2022. 04. Spring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라! 골 3:5

대구제일교회 사랑의 공동체





사순절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이다.

사순절의 전례 색깔은 보라색이다. 보라색은 슬픔과 참회 그리고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영광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물댄동산

통권 제97호
The Well-Watered Garden

소통의 장

- 여는 글** 04 함께 할 때, 기적은 공급 부족이 아니다.
박창운 위임목사
- 교육부** 06 하나님이 캐스팅한 '고등부'
한규연
- 08 내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배정수 중등부 교사
- 새가족부** 10 새가족 소개
- 11 나의 소망과 기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매리 성도
- 13 첫사랑을 회복하소서
김종길 성도
- 해외선교 소식** 15 중국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다
손명락 선교사
- 교계 소식** 17 제20대 대통령 당선 축하 총회장 묵회서신
류영모 목사
- 20 3.1절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
- 세대간 소통의 장** 21 MZ세대의 언어 알기
김원진 청년 / 이경호 집사
- 신앙 간증** 23 교도소 담장 안에서 배운 감사
최명룡
- 소식 나눔** 27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교육의 장

- 평신도 신앙강좌** 29 신학공부의 필요성 [1]
장규현 목사
- 신앙생활 묻고 답하기** 32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정말 있나요?
임병철 목사
- 은혜로운 찬송가 이야기** 37 160장 무덤에 머물러
홍보출판부
- 5분 독서코너** 40 가나안에 거하다
- 연간주제 릴레이** 44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생활 [1]
김병년 목사

크리스천 문화

- 건전한 영화 소개** 50 기독교 세계관으로 영화읽기 [1]
- 가벼운 몸 풀기
박창운 위임목사
- 공연·전시** 55 우리지역 문화·공연 활동소개
홍보출판부
- 건강 칼럼** 57 마스크 속의 구강건강
송근배 장로
- 60 사랑하고 배려하면 장수한다
김홍석 은퇴집사
- 제일동산 게시판** 63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 성경 퀴즈** 66 제 96호 성경퀴즈 정답



물댄동산 제97호 표지(앞, 뒤)의
이미지제공은 청년부 품공동체
곽지예 청년이 제공을 했습니다.

함께 할 때, 기적은 공급 부족이 아니다.



대구제일교회
박 창 운 위임목사

까미노 데 산티아고, 프랑스 생장이라는 곳에서 스페인의 산티아고까지의 길을 사람들은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부릅니다. 지구상의 많은 이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순례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걷는 순례객들은 몇 개월에 걸쳐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다고 알려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스페인어: Santiago de Compostela)까지 800Km 이상이나 되는 길을 걸어옵니다.

이 순례와 관련한 영화 중에 <The Way>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산티아고 순례의 여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박사 과정을 그만두고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싶다는 아들 다니엘이 순례의 길에 나섰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높은 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악천후 속에서 길을 걷다가 피레네 산맥에서 조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톰은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러 옵니다. 아들의 시신과 유품을 정리하며 “아들은 왜 이 길을 걸으려 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걷고자 했던 길을 아버지가 걸어감으로 순례는 시작됩니다. 이미 재가 된 아들을 작은 상자에 담아 배낭에 매고 걸어갑니다.

아버지는 여정 속에서 어떤 작가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대사 중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기적을 바라고 이 길을 걷지만, 그러나 기적은 ‘공급 부족’입니다.” 많은 이가 기대를 하며 그 길을 걷지만, 현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음을 넌지시 일러줍니다. 그런데 영화가 지속하고 아버지의 순례 길이 마무리될 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공급부족이라던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들을 이해하게 되고, 떠난 아들을 아버지의 마음에서 내려



놓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 까미노 데 산티아고에 나선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그 길을 걷습니다. 어떤 이는 살을 빼 예전에 입던 양복을 입어보려고 그 길을 걷고, 어떤 이는 담배를 끊고 과거의 굴레를 벗어 보려 길을 걸으며, 또 어떤 이는 글을 쓰는 자신의 삶에 슬럼프가 와서 이를 극복해 보려고 걷습니다. 저마다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길을 나설 때, 아버지 톰도 자신의 순례 목적을 생장의 경찰서장과와의 대화 속에서 드러냅니다. 자신은 “아들을 위하여 걷노라”고 말하자, 톰과 똑 같은 아픔을 가진 경찰서장은 “그 길은 자신을 위하여 걷는 길”이라고 일러줍니다.

모든 순례의 여정이 끝이 날 때, 아버지는 그때에야 그 길이 자신에게 얼마나 위대한 여정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의 방식이 독특합니다. 생장의 경찰서장은 이 순례의 길이 “혼자 걷길 원하는 이들이 많아 찾아와 걷는 길”이라고도 알려주는데, 그런데 그 길은 혼자 찾아온 길이지만 도리어 그 과정 속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순례자들이 모여 함께 걷는 길이 되고 바로 거기에 새로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자의 사연과 아픔이, 함께 하는 길을 통해서 서로에게 치유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그러면서 소중한 공동체 의식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서로의 삶이 치유되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바울 사도가 말한바 새로운 피조물처럼 새롭게 인생을 보는 이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물론 함께 하게 되었던 세 친구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살을 빼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줄담배를 피우는 모습으로, 여전히 영감이 아닌 갈등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그들도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현실을 소중히 여기며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아버지 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걷던 길이 도리어 자신을 새롭게 보는 열매로 다가오고, 함께 하는 이들에 대한 작은 배려와 사랑과 솔직한 자신의 삶의 고백이 어우러져 다시 자신을 향한 사랑의 열매로 자라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았더니, 함께 하며 걸어왔더니 행복한 삶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기적을 바라고 이 길을 걷지만, 그러나 기적은 공급 부족입니다.”라던 작가의 말이, 어느 덧 함께 하며 삶을 나누며 격려하는 모습 속에서 “아니, 기적은 공급부족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듯 기적은 우리의 삶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함께 걸어가는 삶. 이 말이 오늘따라 강렬하게 가슴에 남습니다. 현대사회가 아우성치는 사랑과 행복의 공급 부족이 이 말속에 오롯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살롬!** | 불행동상

하나님이 캐스팅한 ‘고등부’

— 고등부 동계수련회 후기 —

한 규 연 (고등부 2년)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어서 예배에 변수가 있는 점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우리 고등부도 코로나로 인해 수련회 일정이 한 주 연기되어 2월 13일에 수련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옛날처럼 야외로 나가서 1박 2일로 진행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3주에 걸쳐 진행하니 매주 수련회를 기다리며 설레는 기분이 좋기도 하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우리 수련회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사람들’인 것처럼 이정이 목사님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인 야곱에 대하여 설교를 하여 주셨고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성격들을 MBTI(성격유형 검사)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 신유미 선생님이 고등부 학생들이 서로 친해지도록 하기 위해 마스크 위에 표정을 그리고 돌아다니며 그 친구의 감정을 유추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조금 어색했던 분위기가 풀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에 MBTI 검사를 하였고 마지막에는 홍지수 선생님이 나오셔서 퀴즈 푸는 활동도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첫째 날에 너무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둘째, 셋째 날의 수련회 참석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사람은 베드로였다. 목사님이 어부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캐스팅하신 이유를 생생하고 은혜롭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제자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주실 때에는 더욱 공감되었습니다. 그 후 신유미 강사님과 지난주에 진행했던 MBTI를 바탕으로 외향형(E)-내향형(I), 감각형(S)-직관형(N), 사고형(T)-감정형(F), 판단형(J)-인식형(P)으로 조를 짜서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성격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을 조별로 발표하였고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외향형은 주말에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내향형은 주로 혼자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일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개인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외향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

하여 서로 서로 성격이 어떤지 알게 되었고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 후 둘째 날에 끝내지 못한 마지막 판단형(J)-인식형(P) 조별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격 유형에 따른 차이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동영상상을 시청하였고 다시 한번 MBTI에 관한 흔한 오해를 짚어 주셨습니다. 수련회를 마치면서 ‘나에게 예그리나 고등부란?’, ‘예그리나 고등부의 장점’, ‘예그리나 고등부가 보완할 점’들에 대해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예그리나 고등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더욱 크게 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주에 걸쳐 진행한 수련회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사람들은 부자이거나 성격이 좋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목사님이 예그리나 고등부 모두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고 하실 때는 우리도 하나님께 캐스팅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신유미 강사님과 함께 한 성격유형 검사에서도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서 보람찬 수련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날에 교회에 올 때는 솔직히 수련회의 설렘보다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짧지 않은 3주의 수련회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해주신 고등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등부 학생들 모두 입시 준비로 바쁜 와중에 이렇게 수련회에 참가해 공부보다 하나님을 더 위에 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일을 실천에 옮긴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처럼 수련회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이렇게 잘 진행해주신 저희 예그리나 고등부 목사님, 선생님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입시 준비를 하는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불평등상

중등부 수련회 기고문

* 내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배 정 수 성도
(중등부 교사)

우선 이렇게 수련회에 관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사로서 수련회에서 아이들을 돌볼 기회가 생겨서 참 기쁩니다. 하나님이 겨울 수련회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웠으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많은 아이가 코로나로 모이지는 못했지만 참석한 아이들은 물론 집에서 이 수련회 영상을 보았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 도시락 준비를 위해 아이들의 참석 여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된 이번 수련회는 비록 시간은 짧지만, 이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와 다른 교회에서 교사로서 맞이했던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수련회가 단지 모여서 함께 즐기고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삶의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끌어 내는 하나님의 별식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삭이 예서가 잡아 올 사냥감을 별식으로 해서 예서에게 마음껏 축복하려고 했듯이 하나님 또한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마음껏 축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강사는 우리 교회에서 시무하시는 박종성 전도사님으로 젊은 분이기에 아이들의 관심사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잠언 4:20-23절 말씀에 기인해 소중한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가운데 주제 활동으로 자신과 서로를 아는 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과 연관된 시간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기회였습니다.



DISC 행동 유형 검사, 그림으로 저희의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 등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법 관심을 보이는 눈치였습니다. DISC 행동 유형 검사에서는 참을성과 예측 가능한 일을 선호한다는 범위에 아이들이 많이 속한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로서는 참 이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희를 어떻게 보는지 검사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활발하고 발랄하며 기쁨이 넘쳐 보인다는 범주에 아이들이 많이 속했습니다. 이것 또한 교회에 속한 아이들로서는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게 저희 자신을 아는 약간의 정 보는 되겠지만 맹신하지는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날 박해진 전도사님의 설교만 듣다가 다소 다른 신선한 접근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강의하시니 아이들은 부끄럽지만 제법 즐거운 상태였습니다. 설교와 강의가 짧지 않았음에도 전도사님의 생생한 말씀에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원래 서성준 목사님이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박종성 전도사님이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전도사님의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다 마치고는 도시락을 주며 아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기도로 은혜 안에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여러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수련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헌신임을 깨달아 다음에는 더욱더 많은 아이가 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더욱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련회를 기획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불꽃동상





New family welcome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정제영 _ 4교구 26구역



임효진 _ 1교구 23구역



이경민 _ 4교구 33구역



박은혜 _ 4교구 8구역



김지윤 _ 1교구 16구역



곽근혁 권희정 _ 2교구 9구역



김남희 _ 1교구 26구역



장유리 _ 3교구 16구역



이정엽 _ 3교구 16구역

나의 소망과 기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 매 리 성도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순모임 ‘자라는 순’의 순장이신 이영숙 권사님의 전화를 받고 반가운 마음으로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새 신자의 글을 물댄동산에 실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익숙한 일이 아니라서 바로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구제일교회는 어릴 때부터 주일마다 집을 드나들 듯이 다녔던 모교회인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는 작은 교회에 아는 형제를 따라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함께 가족처럼 오랜 시간 지나왔는데, 작년에 직장 관련된 특별한 계기로 다시 모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중앙파출소 뒤의 덕산동에 살았는데, 현재는 대구제일교회 기독교역사관이 된 구성전에 걸어서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서 교회 가는 길에 할아버지 한약방도 있어서 지나가면서 할아버지한테 들러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아있다가 용돈 100원을 주시면 다시 교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당연히 없지만, 교회 입구 문 맞은편에는 정말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작은 매대에서 불량식품을 파셨는데, 그것을 사 먹으며 교회를 다녔던 즐거움도 아련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지금은 그 건물들이 없어졌지만, 본당 왼쪽에 놀이터와 유치부, 본당 1층에 유년부, 본당 오른쪽 건물에 초등부, 본당 뒤쪽에 소년부, 그리고, 초등부, 고등부를 거치며, 예배드렸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추억으로 떠오릅니다. 옛날 기억이 떠오르니,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릴 때 아무



것도 모르고 지내온 세월조차도 나의 일평생을 계획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이끌어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헤맬 때도 업어서 인도해오신 세월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막연히 하나님을 찾았던 세월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하였고, 저에게 부으시고 채워주시고 영광 받으시고자 예비하신 것들을 보여주시고자, 어려움과 답답함조차도 세상에서 저에게 맡기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키워오신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이제는 너무나 확실히 잘 압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답이시고, 자녀 된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고자 우리 각자를 지으시고, 매 순간 이끌어가심을.

2013년부터는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컴퓨터 교수로 섬기며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살아온 세월보다 남은 시간이 더 적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이제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보다 매 순간 나의 모든 죄지음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남은 시간들을 기쁘고, 감사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이 모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어렸을 때 사랑해주시던 어른분들,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중년이 된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들을 보면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해 대구제일교회를 일찍부터 세우시고,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 만나게 된 ‘자라는 순’의 믿음의 선배와 형제들의 따뜻한 사랑도 참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시고자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예배를 이끌어주시는 박창운 목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대구제일교회 식구들 모두 만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불렷동상

첫사랑을 회복하소서



김 종 길 성도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께 저희 가족을 소개하고 본 교회에 등록해 오게 된 사연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은 안강영락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예배와 섬김, 봉사로 약 20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집에는 막내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충명을 주셔서 대구에 있는 '계성고등학교'로 진학하게 해주시면서 가족들을 저의 고향인 대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사하기 전부터 앞으로 섬길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었고, 대구제일교회의 담임목사 '박창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일예배도 드리면서 마음의 작정을 해왔습니다.

저는 아직 직장이 안강에 있어서 매주 토요일 새벽에 대구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구제일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분들을 거론하면서 저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일날 교회에 가면 본당 입구에서 밝은 표정으로 반겨주시는 여러 부목사님과 김숙자 전도사님께서 교회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새가족부를 통해 6주간 매 주일 교육 받을 때마다, 정성껏 성경 공부를 해주신 강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서로 신앙 간증을 나

눌 때 저의 심령에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비해 놓으신 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의 아내(최영숙 집사)는 구역장 이옥자 권사님의 권유로 교육을 마친 후에 바로 유치부교사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녀(원주)는 청년부에 소속해있으며 금요 철야 예배 때는 반주를 섬기고, 저와 저의 아내와 함께 유치부 교사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째인 아들(원우)은 고등부에 소속해 있으며 학생회 총무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2개월간의 휴가로 인해 새가족부 교육을 마치고 ‘주바라기’로 섬기는 표동철, 최웅호 집사님을 통해서 주일마다 좋은 교제를 나누고 퍼스트 스텝 7주간 과정도 참여하게 되면서 저의 신앙에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매 주일 강의로 준비해주신 부목사님과 섬기는 찬양 스텝, 식사 준비해주신 분들, 각 조별로/리더로 섬겨주신 권사님과 집사님, 그 외 장로님과 세족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짧은 시간동안 너무나 많은 성도를 만나고 적응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도 저에게 첫사랑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살아온 날들과 한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겪은 삶 속에 저에게 알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난, 은혜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제일교회에서 처음으로 만난 하나님을 또다시 회복하기 위해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이 크지만 언젠가 이 상황이 끝이 나면 제일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친교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렷동상



손 명 락 선교사

중국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다

과거에도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현재 정부의 수령인 시진핑이 과거 모택동정권의 정책을 모방하면서 모든 종교를 말살하고, 오직 공산이념만을 신앙화하여 전체 중국 인민을 이끌어 가겠다는 사고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삼자교회(자치, 자전, 자양)를 인정하여 주면서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철저히 감시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고, 정부의 감시하에 있는 삼자교회가 싫어서 수많은 지하교회(가정교회)가 생겨났었는데 현재 가정교회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전혀 활동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가정교회와 긴밀한 관계 유지를 하던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99%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떠나가게 했고, 결과적으로 스스로 자생할 수 없었던 가정교회의 리더들은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사회 속에서 또 다른 일 자리를 찾으면서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은 중국인의 99%가 사용하는 위챗의 아이디와 함께 사용하는 국가란에는 거의 국외(예를 들어, 스위스, 영국 등)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유는 추적당함이 두려워





서입니다. 또한 단체방 개설은 100% 추적 감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방에서는 특별히 신앙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 금지어입니다. 저도 현재 여러 중국 사람과 기도문을 주고받지만 리더에게는 절대로 보내지 않고 일반 평신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 인정해 왔던 삼자교회의 예배당 십자가까지 거의 철거하게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모택동시절 문화대혁명 10년 기간에 엄청난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오히려 수만 배의 증가를 나타내었던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세력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중국교회를 분명히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곤경은 중국 내의 혼잡한 신앙적 흐름을 바로 잡기 위함이라고 일부학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선교 또한 저희 임의대로 한다, 안한다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단지 순종의 자세로 오늘에 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13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시진핑이란 도구를 통하여 단련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며,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서양선교사들을 통하여 1억이 넘는 크리스천이 세워졌음을 기억하면 지금은 오로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 불렙동상



제20대 대통령 당선 축하 총회장 목회서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류영모 목사(한소망교회)는 3월 10일 목회서신을 발표하고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한국교회가 기도로 국정운영에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류영모 목사

총회장 목회서신 전문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초박빙의 승부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민심이 드러난 만큼 낙선 자들과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흔쾌히 승복해야 할 것입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역사적 직무를 맡게 된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무를 맡았기에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새 정부에 대해 건강한 협력자로 또한 건전한 비판자로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당선인 앞에는 신속히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4차 산업 혁명의 문명사적 전환기에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민족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지금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빛의 속도로



달라지는 세상에 발맞추어 신속한 변화와 혁신의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당선인은 당선인과 생각을 달리하는 절반의 국민이 있음을 잊지 말고 화합과 통합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극단적 진영대결로 국민의 마음이 분열되고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부디 화해와 치유의 리더십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Nelson Rolihlahla Mandela) 대통령은 27년간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나와 70세가 넘는 나이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적패청산 대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 '과거를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라며 과거사로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은 화해의 정치로 국가의 미래를 열어갔습니다. 부디 넬슨 만델라처럼 통합과 화해의 지도자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하여 당선인과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터 한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포퓰리즘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다듬어져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이 행복한 나라, 공정한 성장으로 누구에게나 기회 충량이 충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상은 당선인이나 한 정당이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 시장경제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리더는 물론 영적 리더인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구촌은 위기 촌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시대가 움트고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언제나 힘이 없는 평화와 정의는 우롱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제외교의 강화, 빈틈없는 국가안보를 통해 평화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평화통일, 한민족공동체의 번영과 선진 리더십발
휘로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당선인에게 후보 시절 10가지 공공정책을 제안하였고 모든 제안
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교회가 바로미터로 생각하는 두 가
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사학법 재개정의 건입니다. 이것을 한국교회는
반기독교적 악법으로 규정하고 주목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한국교회가 제안한 기후위기 문제, 저출산 문제, 이단 및 유사종교 피해방지, 근대종
교 유산보호, 기부문화 활성화, 생명존중 및 평화적 남북통일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신속히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중차대한 시기에 국가경영을 맡게 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국
민이 기대하고 축복하는 것보다 임기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온 국민이 존
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당선인과 새 정부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3.1절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대구광역시장로회총연합회(회장 : 동현명)는 지난 3월 1일 우리교회(대구제일교회)에서 제 103주년 3.1절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했다.

회장 동현명 장로의 인도로 드러진 이날 재현행사 1부 예배는 장인수 장로의 기도와 홍석환 장로의 성경봉독, 권순웅 목사의 '일사각오의 믿음' 제하의 설교, 박창운 담임목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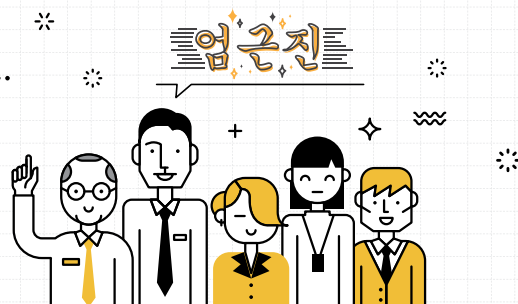
설교 후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3.1독립정신 계승 △코로나19 종식과 대구발전 △광역시장로회 연합활동과 다음 세대의 부흥 △대한민국의 번영과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가졌다.

이어진 시간에는 애국가 제창 후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3.1절 노래와 만세삼창을 통해 나라 사랑 정신 계승을 다짐했으며, 시민위로 음악회, 시가지 재현행사 등도 진행됐다.



MZ세대의 언어 알기

김 원 진 청년
이 경 호 집사
(홍보출판부)



요즘 SNS를 포함한 여러 대중 매체에서 ‘MZ 세대’라는 단어가 꾸준히 떠오르고 있는데요, 인터넷이나 SNS를 자주 접하는 분이시라면 MZ 세대에 대해서 친숙하고 잘 알고 계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낯설것으로 생각합니다.

‘MZ 세대’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태어난 세대를 합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이들은 각종 SNS에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며 줄임말, 은어 등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 글을 통해 MZ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도 익히고, 반대로 MZ 세대들이 아닌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도 함께 익혀 세대 간 어우러짐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킹받는다

뜻 _ 킹(King) + 열 받는다는 합성어. 열 대신 킹이 들어가 접두사의 역할을 함.

유의어 _ 화난다, 어이가 없다 등

알잘딱깔센

뜻 _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의 줄임말

재 질

뜻 _ ‘어떤 것의 느낌, 혹은 부류를 대체하는 말’로, 예를 들어 맛있는 식당에 방문했을 때, “이 집 완전 맛집 재질” 이런 식으로 사용.

유의어 _ 느낌

쫄쫄파리

뜻 _ ‘아주 조금씩, 엄청 적은 양을 톱툰이 모으는 모양’을 일컫는 말.

유의어 _ 티끌 모아 태산, 조금씩, 적토성산(積土成山) 등

갑통알

뜻 _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겠다’의 줄임말.

유의어 _ 삼순구식(三旬九食), 단사표음(簞食瓢飮), 가도벽립(家徒壁立) 등

킹 정

뜻 _ 킹(King) + 인정의 합성어로, 완전히 인정한다는 뜻의 강조하는 말로 사용.

유의어 _ 완전 인정

핑 프

뜻 _ 핑거 프린세스 (Finger princess)의 줄임말로, 간단한 정보조차 스스로 찾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을 뜻함.

유의어 _ 도학선생(道學先生), 우이독경(牛耳讀經) 등

엄근진

뜻 _ '엄격, 근엄, 진지'의 줄임말로, 한마디로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사람에게 사용함.

유의어 _ 분위기가 딱딱하다, 얼음장 같은 분위기다 (사람이다) 등

꾸안꾸

뜻 _ '꾸민 듯 안 꾸민 듯'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안 꾸민 것 같지만 신경 쓴 스타일을 일컬음.

유의어 _ 녹의홍상(綠衣紅裳) 등

짱친

뜻 _ 제일 친한 친구를 일컫는 말.

유의어 _ 죽마고우(竹馬故友), 관포지교(管鮑之交), 베프 등

신조어 Quiz! 괄호 안에 들어갈 신조어를 맞추시오.

1번 문제 A : 나 이번에 드디어 갖고 싶던 노트북을 샀어!

B : 그 노트북 비싸던데 어떻게 산 거야?

A : 돈을 () 열심히 모았어. 뿌듯하더라고~

2번 문제 A :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내 () 같이 느껴졌어.

B : 어떤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게 됐니?

A :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내게 큰 힘이 되어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 ()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

3번 문제 A : 본당 앞에 붙여진 수련회 포스터 봤어? 이번에 수련회 재밌겠더라!

B : 맞아. “수련회 ()!” 라고 적혀진 걸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기대가 되더라고.

A : 많은 사람이 함께 와서 은혜를 나누는 수련회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4번 문제 A : 우리 교회 이스트힐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정말 맛있어.

B : 겨울에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너무 춥지 않아?

A : 아니. 나는 ()라서 겨울에도 차가운 음료를 마셔!

5번 문제 A : 예배 끝나고 뭐 먹지? 나 () 좀 해 주라.

B : 음... 떡볶이 어때? 같이 먹으러 가자!

A : 그래 좋아! 블렌딩샐러드

췈뵙 / 췈뵙 (9) 10췈뵙 (7) 5췈뵙 (8) 1췈뵙 (2) 12췈뵙 (1) 17췈뵙

어느 무기수의 간증 교도소 담장 안에서 배운 감사

최명룡

오늘도 따뜻한 물 P·T 세 병으로 샤워를 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펄펄 쏟아지는 곳에서 몸을 씻으면서도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이 궁벽한 곳에 살면서 감사를 드리고, 맛있는 반찬 가득한 밥상 앞에서 드리지 못했던 감사를 박한 음식상 앞에서 드리고, 따뜻한 온돌방에 몸을 눕히며 드리지 못했던 감사를 차가운 마룻바닥에 몸을 눕히며 드리고 있습니다.

사십 대 후반의 나이에 이 육신이 담 안에 무기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던져지게 되었을 때, 나는 정말 내 인생이 끝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영광 크게 가리우고 이곳에 들어온 이 못 나고 죄 많은 것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이 좁고 어두운 곳까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담 안에서 살아 온 이십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이 가까이 계심을 보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는지요.

그중에 평생 잊을 수 없을 두 가지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2011년 초의 일입니다.

방통대에 가기 위하여 입학 신청을 하였는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밖에 있는 가족 중에 누구든지 학비 지원을 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신청서에 형의 전화번호를 적어 제출했는데 담당 직원이 확인 전화를 드린바 형이 학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註. 이 간증문은 20여 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철저히 단절된 교도소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무기수 형제가 칠륙 같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적은 짧은 간증문이다. 이 형제는 현재 오랫동안 국내선교부 특수선교팀이 사역해 오고 있는 대구교도소 형제분으로 비록 지금은 자신이 영어의 몸이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담 밖 사람들 못잖은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를 체험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신실한 오네시모 같은 직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형과 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학기 40만 원 정도 되는 학비를 못 대줄 만큼 형의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 혹시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염려되어 누나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형이 며칠 전에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응급실에 실려 가서 치료를 받고 왔는데 한쪽 귀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걱정이 앞섰지만 하필이면 이 시기에 형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속이 많이 상하였습니다.

담 안에서는 내가 원한다고 바로 방통대에 원서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 직원들이 신청자들을 심사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려내기 때문에 나이가 적지 않은 저는 학습 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공을 들여 독학사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러 A° 학점을 받아 학위를 취득한 후 방통대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입학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저는 독학사 학위 취득을 통하여 얻고자 했던 또 하나의 바람이 무산되었습니다.

바로 행형 급수 한 급수 진급이 좌절된 것입니다. 2010년 10월에 2급수로 진급을 한 후 그달에 독학사 최종시험을 치르고 그해 12월에 학위를 취득한 터라 다음 해인 2011년 1월에는 당연히 1급으로 진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시험을 쳤던 동료는 진급 하였는데 저는 진급에서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규정상 학위 취득자는 진급을 시켜주게 되어 있었는데 누락이 되어 담당 직원을 만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규정이 바뀌어 진급한 지 6개월이 넘지 않으면 진급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담 안에서는 규정이 바뀌어도 바뀐 규정을 일일이 통보해 주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알아봐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어디에 하소연도 못 하고 답답한 가슴을 그냥 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학사 학위 취득으로 얻고자 했던 두 가지 이득이 다 무산되어 마음에 상처가 적지 아니하여 한동안 방황하였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읽히지 않아 거의 두 달을 손 놓고 지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날려 버렸습니다.

울컥 울음이 터져 나오며 모든 상처와 응어리졌던 것들이 씻겨 나갔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신데 방통대 못 가게 되었다고 또 진급 안 되었다고 상처 입어 손 놓고 지낸 시간이 바보 같고 아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입으로만 아버지 아버지 부르며 살아왔는데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비로소 그 분이 ‘내 아버지’ 되심의 의미를 가슴으로 배우게 되었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다소나마 깨닫고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두 해를 평안히 지내다 13년 초에 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정초부터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아직 이 안에 묶여있는 자신의 처지가 비관스럽고 그때까지도 밖에 나갈 날을 알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답답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잠을 설쳤습니다. 그 위에 오만가지 잡생각들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밤을 새우게 하려니 급기야 그것이 불면증으로 이어졌습니다.

거의 석 달 가까이 잡생각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밤을 새우고 낮에 방에 있을 때나 공장에 나가 있을 때 잠만 나면 앉아서 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기도와 말씀 묵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거의 폐인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초쯤 어렴풋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보려고 했고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책을 펴 놓아도 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기도를 하려 자리에 앉으면 곧바로 잡생각만 떠올라 도저히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공장 책꽂이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전광 목사님의 ‘평생감사’란 책이었습니다.

별 기대도 없이 그냥 한 장 두 장 읽어 나갔는데 그 책에 빠져들어 앉은 자리에서 절반 가까이 읽어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책에는 많은 고난 중에 은혜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여러 사람의 간증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았고 그 감사를 통하여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 것을 보고 잠시 책을 덮고 과연 이 나이에 여기에 사는 나 같은 사람에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감사 거리를 찾아 적어 보았습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여도 아직 내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고, 그 어지러움 속에서도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 변치 아니하시고 곁을 지켜 주시며 힘이 되어 주시는 교회와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셨고 내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손길이 몸의 건강과 환경을 여전히 살피주심을 알게 하셨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조목조목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 내려다가 보니 A4용지 세 장을 채우게 되어 자신도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하나 번호를 붙여 보았더니 거의 칠십까지 번호를 붙이게 되어 노트를 한 권 마련하여 그 첫머리에 모두 옮겨 쓴 뒤 몇 가지를 더 찾아내어 일흔일곱 개를 채우고 그 위에 ‘일흔 일곱 가지 감사’라고 붙인 뒤 그 노트를 감사 노트로 활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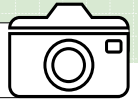
그날부터 매일 저녁 자리에 눕기 전에 그날그날의 감사 할 것들을 적은 뒤 짧은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마감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후로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두 번의 큰일을 겪고 난 후에야 데살로니가 5:18의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닫고, 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일에도 감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열다섯 척 담장 안에 몸이 묶여있어도 때를 따라 감사로 기도드릴 수 있음에, 찬양할 수 있음에, 방에서든지 공장에서든지, 가까운 곳에 성경을 두고 째짤이 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마음껏 부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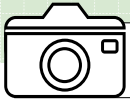


🔊 2022. 01. 16 여전도회 주일예배



🔊 2022. 01. 16 장규현 목사 부임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2. 02. 27 삼일절 기념 감사예배



2022. 02. 27 전반기 장학금 수여식



평신도를 위한 신학 강좌[1] 신학공부의 필요성



장 규 현 목사

신학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생각과 함께 나오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신학은 목회자들과 소수의 지식인들이 접근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굳이 평신도가 신학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평신도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신학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

성경을 바라보는 눈

신학은 성경의 내용을 ‘통일성’ 있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성경은 서로 다른 시대 상황 속에서 다양한 내용과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기록하였다. 성경은 각 시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런데도 성경의 내용 가운데 서로 충돌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만나게 될 때, 당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성경은 오랜 역사 속에 기록되었기에 다양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시적인 상징과 은유가 사용되었다. 어떤 본문은 쉽게 이해되기도 하지만, 어떤 본문은 드러난 표현 뒤에 감추어진 의미가 있기도 하다.



그렇기에 신학적인 기본 소양이 없을 때, 우리는 성경을 모자이크식으로 이해하게 된다. 다시 말해, 각각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한다는 의미이며,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볼 수 있어야만,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의 말씀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서 성경을 일관성 있게 읽어나가지 못하게 될 때, 교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교리에 담긴 정신과 의미들 보다는 율법적이고, 박제화된 교리에 집착하게 된다. 쉽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성경의 내용을 통일성 있고, 조화 있게 보기 위해선 신학공부가 필수적이며, 신학의 첫 번째 역할이다.

삶과 신앙의 괴리를 극복

신학은 일상적인 삶의 영역과 신앙의 삶의 영역을 연결시킨다.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된다. 칼바르트는 하나님 말씀의 3가지 형태로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이라고 정의했다. 풀어서 설명하면, 선포된 말씀은 설교이고,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즉 설교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선포되기에 각자의 삶과 연결되지 못

할 경우들도 있다. 또한 선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결단하며 삶으로 나아가지만, 교회를 떠나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자신의 삶과 신앙의 괴리를 계속해서 경험할 때, 신앙은 활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선포된 말씀 앞에서 결단한 이후, 성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신학적인 사고와 소양이 필요하다. 만약, 그냥 계속해서 “믿어!”라고 외치는 무지성적인 신앙의 행태가 반복된다면, 우리의 신앙적 삶이 빈약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통할 수 없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학은 목회자와 성도 모두를 위한 것이다. 결국 신학은 일상의 많은 질문 앞에서 신앙적인 대답을 하게 인도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예배의 문제,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문제, 직업을 선택함의 문제, 수많은 일상적인 질문 앞에서 바른 신학적인 대답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분리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신학의 두 번째 역할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된다.

신학은 자신이 사는 세계를 신앙의 눈으로 보게 한다. 모든 사람은 특정한 시대 속에서

살아간다. 각 시대는 그 문화가 주는 가치관, 세계관,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인간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관점을 제공한다. 그 누구도 그 시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의 괴리와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는 진화론적 세계관과 창조론적 세계관의 충돌일 것이다. 많은 학생이 이러한 세계관의 충돌 앞에서 혼란을 경험한다. 또한 경제적인 관점, 자녀교육에 대한 관점, 수많은 가치관이 충돌하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자신의 이익과 성공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 바른 신학적인 대답을 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떠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신학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현실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게 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마 10:16).”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르게 안내하는 것, 그것이 신학의 세 번째 역할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

를 한다. 위기의 시대이다. 그러나 위기를 맞이하게 된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지 않는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신학의 부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바라보기 위한 노력이며, 그로 인해 복음을 각자의 삶에 적용하며 해석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진 신학적 토대가 없음으로 인해 삶과 신앙은 분리되었고,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이단이 득세하는 모습까지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시대 속에 매개해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의 신학과 그 정신을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괴리를 극복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인도할 것이다. 앞으로, 필자가 배운 신학의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 조금 나누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도님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를 소망한다. | **불멸의종상**

알쏭달쏭 성경 Q&A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정말 있나요?



임 병 철 목사

아직도 한국인의 생활 곳곳에는 무속신앙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날을 택해서 이사하고,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철학관을 찾고, 결혼을 앞두고는 사주나 궁합을 맞춰보고, 못자리를 위해 풍수지리를 찾기도 합니다. 재미 혹은 호기심으로 토정비결을 보거나 ‘오늘의 운세’를 찾는 사람들도 많고, 자녀의 대학입시나 사업, 투자를 위해 거액의 복비를 들고 점집을 찾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요즘은 미래가 불안한 20, 30대 젊은이들이 점을 더 많이 본다고 하는데, 유동 인구가 많은 대학가와 젊음의 거리, 지하철역 부근에는 어김없이 타로카드, 구슬, 관상, 점집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 5명 가운데 1명은 점을 본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제164-2호, 2022.01.19. 참조). 혹은 점집을 직접 찾지는 않더라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 기도의 형식을 빌려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똑같이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날을 미리 알기 위해 점을 치거나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찾는 까닭은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인간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계론

적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나 불행한 일이 반복적으로 닥치면 그것을 조상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조상의 죄로 인해 가계에 저주가 흐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역자들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며 대적 기도를 가르치거나 축귀 사역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흔히 ‘가계 저주론’이라고 불리는 이 주장은 메릴린 히키의『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베다니출판사, 1997)가 번역되면서 국내에 알려지고, 이윤희의 저서『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어떻게 끊어라』(베다니 출판사, 1999)를 통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정통 교회에서는 가계 저주론을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규정했고, 결국 2012년 이윤희 목사 자신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책을 폐기 처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럼에도 가계 저주론은 아직도 각종 치유 사역과 신사도 운동, 영성 집회의 현장에서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계 저주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질병이 유전을 통해 후대에 영향을 미치듯 조상들의 죄와 저주가 후손들에게도 전가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고, 귀신이나 거짓된 영이 함께 할 수 있고, 따라서 조상의 죄로 인해 대물림된 저주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 20:5-6; 참조, 출 34:7; 신 5:9; 민 14:18). 얼핏 하나님께서 조상의 죄악을 후손 삼 사대까지 추궁해서 갚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삼사 대까지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천 대’와 ‘삼사 대’가 비교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 즉, 무한히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있습니다(시 30:5; 애 3:31-33).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생략한 채, 삼사 대 후손을 벌하시는 것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결코 간과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를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상의 죄가 아무런 죄도 없는 삼사 대의 후손까지 대물림된다는 뜻이 아니라, 조상의 죄를 똑같이 답습해서 같은 죄를 저지르는 후손을 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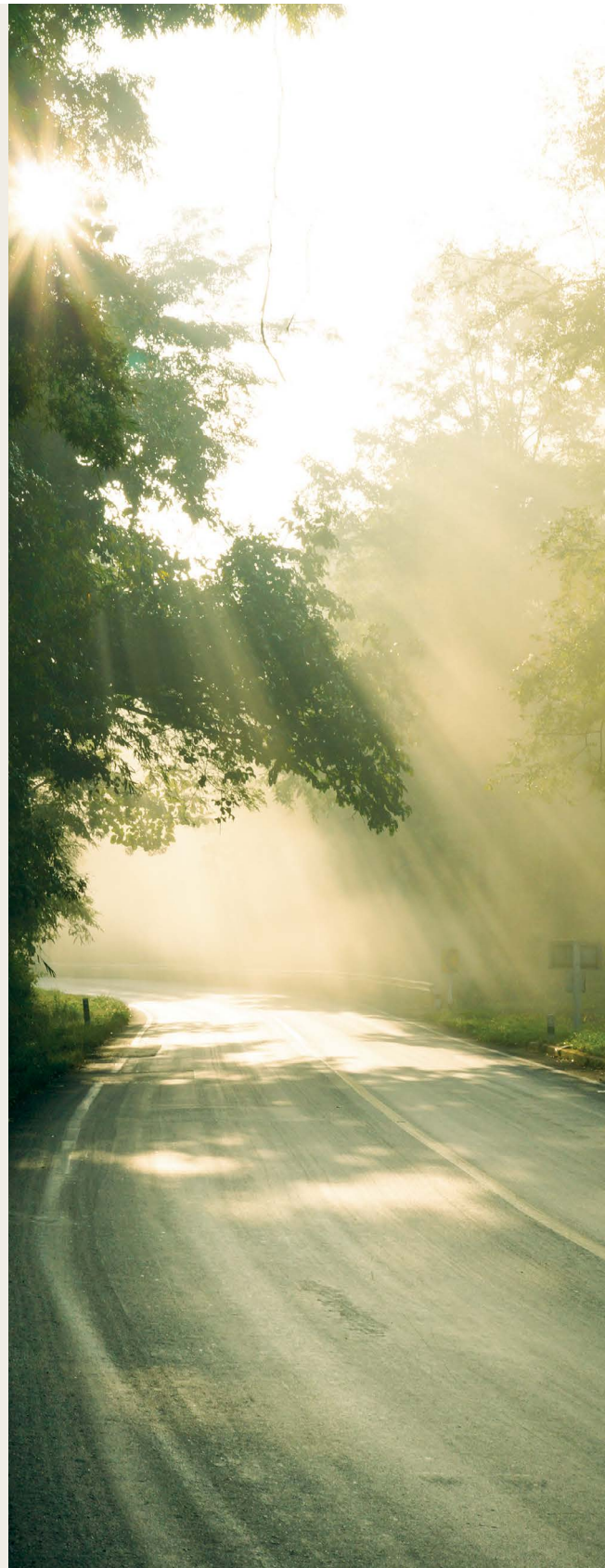
그리고 이 구절에서 ‘삼사 대’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생활 관습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가족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삼 대 혹은 사 대가 함께 모여서 사는 대가족 제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만약 한 지붕 아래 사는 할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한다면 자녀와 손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환경적인 요소는 분명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근거로 조상의 죄값을 후손이 반드시 치러야 하고, 죄가 유전적으로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조상의 죄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각 사람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신 24:16) 훗날 유다 왕 아마샤는 자신의 부왕 요아스

를 죽인 자들을 처벌할 때, 신명기의 이 율법을 근거로 부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 습니다(왕하 14:6).

조상의 죄가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죄로 인해 지금 자신들이 억울하게 죄값을 치르고 있다며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겔 18:2)는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선지자 에스겔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겔 18:4; 참조, 겔 18:20)고 책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조상들의 죄로 인해 후손들이 벌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렘 31:29-30).

이처럼, 조상의 죄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집안의 유전을 통해 내려오는 저주 때문에 질병, 가난, 재앙이 발생한다는 가계 저주론은 인과응보적 사고와 샤머니즘에 영향을 받



은 반성경적인 사고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도 조상의 죄가 계속 따라다니고, 대적 기도나 특정한 선포 기도를 해야지만 저주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반복음적 이단 사상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2)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성도들에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과 가정에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조상의 죄나 저주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빚어 내주시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선택된 그리스도인에게 정해진 운명이나 결정된 미래는 없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굴레나 가계의 저주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쁨과 슬픔, 고통과 절망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고 아름답게 열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벌은 대물림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 불행동상

은혜로운 찬송가 이야기 160장 무덤에 머물러

R. Lowry 작사 · 작곡; 《통일 찬송가, 1983》 150장

(통일 150)

Low in the grave He lay 부활
R. Lowry, 1874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마 28:2) CHRIST AROSE: 6.5.6.4. REF.
R. Lowry, 1874

조금 느리게

B $\flat$ F F7 E $\flat$ B $\flat$ E $\flat$ B $\flat$ Gm C7 F



1. 무덤에 머물러 예수내 구주 새벽기다렸네 예수내 주
2. 헛되이지키네 예수내 구주 헛되이봉하네 예수내 주
3. 거기 못가두네 예수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내 주

후렴

B $\flat$ E $\flat$ B $\flat$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기고 사셨네

F7 B $\flat$ (E $\flat$ B $\flat$) E $\flat$ C F Gm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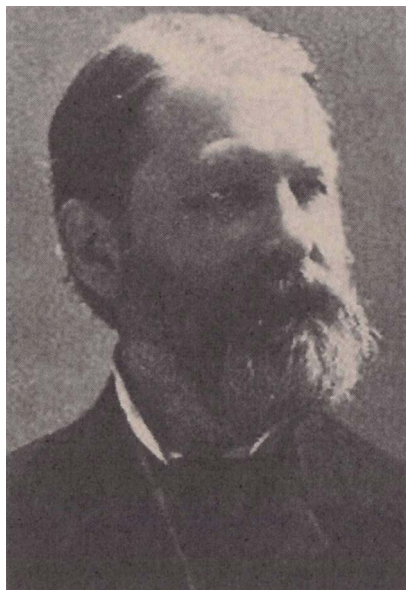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다스리시네

B $\flat$ E $\flat$ B $\flat$ F7 B $\flat$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쉬운 기타코드(capo=1st) B $\flat$ →A F→E E $\flat$ →D Gm→F $\sharp$ m C7→B7



작사·작곡자 로버트 로우리 목사

《찬성시, 1902》 97장에 처음 채택된 이 찬송은, 로버트 로우리(Robert Lowry, 1826 ~ 1899)가 1874년에 작사·작곡하고 친구 하워드 돈과 공동 편집, 자기가 편집책임자로 있는 비글로 출판사(New York: Biglow & Main)에서 1875년에 출판한 「가장 밝고 좋은 것」 ‘Brightest and Best, 1875’²⁴⁴ 113쪽에 처음 실렸다.

작곡자 로버트 로우리(Robert Lowry, 1826 ~ 1899) 목사는 루이스버그대학(후에 버크넬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였다. 졸업과 함께 모교의 문학교수가 되었고 후에 모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845년에 침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웨스트체스터(West Chester)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여,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뉴저지 플레인필드에 있는 파크아베뉴침례교회에서 목회를 마쳤다. 그가 목회할 당시는 남북전쟁 직후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로우리 목사는 신앙적이고 희망적인 찬송을 작사·작곡하여 캠프집회를 통해 보급함으로써 많은 갈급한 심령들에게 새 희망을 주었다. 그는 비글로메인 출판사의 음악 편집자로서 일하면서 ‘Happy Voices, 1865’²⁴⁵를 시작으로 20권이나 되는 찬송책들을 출판하였고, 500여 곡의 어린이 찬송과 복음찬송들을 작곡, 혹은 작사하여 자기가 편집한 출판물에 넣었다.

40세 이후부터 찬송가를 작사·작곡하기 시작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찬송가 작가로 기억되기보다는 설교자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나의 갈길 다 가도록」의 작곡가로 기억하고 있다. 맥커천(Robert Guy McCutchan, 1877~1958) 목사는 그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그의 설교는 불과 몇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작사·작곡한 찬송은 지구상의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로우리는 전문 음악인이 아니었지만, 한 번 불이 붙은 찬송가 작사·작곡에의 정열은 요원의 불길같이 활활 타올라 수많은 찬송을 낳았다. 그리하여 그는 1868년에는 브래드버리의 후임으로 주일학교 노래 편집인이 되었으며, 돈(Doane)과 함께 주일학교 어린이 찬송가를 편집 발행

하였다. 그는 《행복의 소리》 'Happy Voices, 1865' 등 17권의 찬송가책을 펴냈는데, 그 중에는 100만 부 이상 팔린 책도 있다. 여러 해 동안 주일학교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그는 대학 교수로도 있었고, 침례교 총회장도 역임하였다. 그의 찬송가로서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는 것은 다음 11편이다.

- | | |
|--|----------------------|
| ① 무덤에 머물러 (160장) | ② 성자의 귀한 몸 (216장) |
| ③ 주 사랑하는 자 (249장) | ④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 |
| 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278장) | ⑥ 날 위하여 십자가의 (303장) |
| ⑦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 ²⁴⁶ | ⑧ 나의 갈길 다 가도록 (384장) |
| ⑨ 주 음성 외에는 (446장) | ⑩ 울어도 못하네 (544장) |
| ⑪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 (545장) | |

이 찬송이 실린 본격적인 찬송가로는 생키가 출판한 《성가와 독창곡 750곡집》 'Sacred Songs and Solos: With Standard Hymns, Combined, 750 Pieces, 1889' 317장에 실린 후 생키의 《복음 찬송가(1~6권 합본)》 'Gospel Hymns No.1 to 6 Complete, 1894' 323장에 다시 실렸다.

244 'Brightest and Best' A Choice Collection of New Songs, Duets, Choruses, Invocation and Benediction Hymns, For the Sunday school and Meetings of Prayer and Praise. by Rev. Robert Lowry and W. Howard Doane. Published by Biglow & Main, Successors to W. B. Bradbury, 1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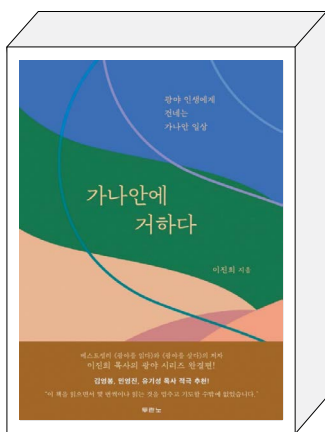
245 'Happy Voices, 1865', New Hymns and Tunes, with Many Popular and Sterling Old Ones, for the Home Circle 문 Sabbath-Schools. Published by American Tract Society, 150 Nassau-Street, New York.

246 이 찬송에 대한 자료는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다. | [블랙핑크](#)

〈출처: 오소운 목사, 알기 쉽게 쓴 21세기 찬송가 해설, 성서원, 2011〉

가나안에 거하다

‘광야’ 같은 인생에게 건네는 ‘가나안’ 일상



가나안에 거하다

저 자 _ 이진희

출판사 _ 두란노서원

출판일 _ 2021년 11월 24일

“이 책을 읽으면서 몇 번씩이나 읽는 것을 멈추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유기성 목사의 고백. 당신이 바라는 가나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맞는가? 베스트셀러 《광야를 읽다》와 《광야를 살다》를 통해 성경 속에 나타난 광야를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해석해 주었던 저자가 마침내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관해 이야기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을까? 나일강의 풍요를 누렸던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광야밖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요셉은 왜 그토록 자신의 유골이라도 가나안에 가져가 달라고 했을까? 이 책은 그동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가나안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 요소를 초월해 영적 세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광야 시리즈를 완결하며 우리에게 말한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마찬가지로 광야 없는 가나안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셨듯이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 가나안에 이를 수 있다.”

■ 프롤로그에서

《광야를 읽다》로 시작해서 《광야를 살다》를 거쳐 《가나안에 거하다》로 나의 광야 여정이 끝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40년이 걸렸다. 감사하게도 나는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책은 사실 벌써 나왔을 뻔했다. 《광야를 읽다》가 나오자마자 독자들에게서 다음 책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 가나안에 대한 책을 써 달라는 것이었다. 나도 그럴 생각이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갔듯이, 이 책도 마찬가지였다. 《광야를 읽다》에 있어서 곧 가나안에 대한 책을 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에 대해 말할 때가 아니다. 광야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들어가 《광야를 살다》 나왔다. 그리고 이제야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으로 독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광야가 십자가라면 가나안은 부활이다. 십자가의 반대가 부활이 아니듯, 광야의 반대도 가나안은 아니다. 광야와 가나안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다. 서로 이웃하고 있다. 광야 안에도 가나안이 있고, 가나안 안에도 광야가 있다. 광야와 가나안은 십자가와 부활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십자가를 거쳐야만 부활에 이를 수 있듯이, 광야를 거쳐야만 가나안에 이를 수 있다. 십자가가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광야도 벗어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십자가 안에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듯이, 광야 안에도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다. 십자가가 실패와 저주 같아도 축복인 것처럼, 광야도 실패와 저주 같지만, 실상은 축복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셨듯이 우리도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

▣ 도서 목차

프롤로그

-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땅
- 1.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나안은 없다
 - 광야보다 위험한 땅
- 2. 광야에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 광야를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
- 3. 광야 길만이 가나안으로 이어진다
 - 광야와 맞닿아 있는 땅
- 4. 광야 안에 가나안이 있다
 - 정복해도 소유할 수 없는 땅
- 5. 광야의 믿음으로 가나안을 살라
 - 바알 신앙으로 물든 땅
- 6. 바알은 소명이 아닌 소원을 묻는다
 - 축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땅
- 7. 다시 광야로 내몰리지 말라
 -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땅
- 8. 우리도 가나안에 머물기를 원하신다
 - 복이 아니라 사명으로 주신 땅
- 9.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
 -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땅
- 10. 영원한 가나안에 잇대어 살라

에필로그

▣ 책 속의 픽(pick)

모세의 눈에 들어온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암갈색 광야였다. 지난 40년간 눈 뜨면 보였던 그 암갈색 광야가 그대로 모세의 눈 앞에 펼쳐진 것이다. “아니 하나님,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녕 제가 보고 있는 저곳이 가나안이란 말입니까?” 눈 앞에 펼쳐진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저런 가나안이라면 못 들어가도 그렇게 억울할 건 없다

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가 꿈꾸는 가나안에는 가뭄과 기근을 모르는, 사시사철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 주는 나일강이 있어야 하고, 애굽에는 요단강 같은 강밖에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가나안에는 개울보다 조금 큰 요단강 하나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애굽처럼 강에 의존해서 살 수 없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한다. 가나안에서는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천수답(天水畓)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비를 내려 주지 않으면 광야가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산다고 기근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어도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도 기근을 만나게 된다. 살다 보면 인생의 흉년이나 기근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런 것 없는 가나안은 없다. 믿음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기도하며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고,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다.

가나안에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지 않으면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면 가나

안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약속의 땅 가나안도 광야에서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와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 와 있다면, 그 광야가 가나안인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이 광야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라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가나안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기는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광야로 보냈노라. 내가 너에게 그 광야를 가나안으로 주었노라. 너에게는 그 광야가 너의 가나안이니라.”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들어가 실패했다. 중세 교회도 가나안에서 실패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렵고 시련이 많을 때, 광야를 지날 때보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없을 때, 가나안에 살 때가 더 위험하다. 사람들은 광야보다 가나안에서 더 많이 실패한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곳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다. 광야에서는 잘 버티다가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힘없이 넘어진다.

광야에 들어가면 비우게 된다. 무엇을 더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있는 것에 자족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자족하지 않는다.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크게 성공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한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탐욕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 바알을 따라가게 된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이 광야보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가나안에서 살 때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만나만 내려 주셔도 감사하라. 장막에서 이슬만 피할 수 있어도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이 되어 주시고, 그들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되어 주시고, 생수가 없는 광야에서 오아시스가 되어 주실 것이다. 광야를 지나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면, 우리는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애석해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짜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을 때 그는 진짜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힘을 쓰는가?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짜) 가나안에서는 영원한 하늘의 평안, 천상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 메뉴하를 누릴 수 없다. 진정한 메뉴하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

3천 년 전에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고 있다. 기도

내용을 보라. 다 바알에게 구하는 기도지, 창조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다. 다 잘되게 해 달라는 기도지, 바르게 살아가게 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다. 좋은 집을 짓고 잘 살게 해 달라는 기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속으로는 ‘바알님이시여, 바알님이시여’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불신자들이 읽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다.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아니,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의 아닌 삶으로 보여 줘야 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습을 눈여겨본다. 복음을 삶으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 드러날 때,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 가게 될 것이다.

▣ 저자소개

이진희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와 한신대학교 대학원(Th. M.)을 거쳐, 오랄 로버츠 대학교(Oral Roberts University, M. A., D. Min.)를 졸업했다. 현재, 미국 웨이코 한인 감리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며,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성경의 배경과 문화에 대한 글들을 싣고 있다. 출판동상

註. 위의 내용은 출판사의 서평과 책 본문의 일부를 최무진장로(홍보출판부 편집위원)가 편집한 것입니다.



외부 기고문 _ 주제 : 가족

[1]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생활

내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김 병 년 목사
(다드림교회 담임)

필자 _ 김병년

시골 강촌에서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한여름에 농
활 온 대학생들의 풍금소리에 이끌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었다. 청구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대구 명덕교회를
출석하며 믿음을 배웠다. 한국외국어대와 장로회신학대
학원에서 공부했으며, 대학생 시절 IVF(한국기독교학생회)
라는 선교단체에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한 이래로 15년
간 IVF 간사로 섬겼다. 서른한 살에 결혼해 알콩달콩 살
던 중 셋째를 낳고 며칠 되지 않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
고, 그 후 지금까지 17년간 자녀 양육과 살림살이와 목회
를 병행하며 남다른 제자훈련을 받는 중이다. 아내를 지
키는 간병인, 세 아이의 엄빠(엄마+아빠), 작은 교회의 목
사, '공 잘 차는' 아저씨.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며 대학졸
업생 큰딸, 대학재학 중인 아들, 엄마 목소리 한 번 못들
고 자라 어느덧 고2가 된 막내딸과 더불어 고통 중에도
즐겁게, 아픔 가운데서도 유쾌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
다. 일평생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기를 바라는 꿈을 품
고, 서울 공릉동에 있는 다드림교회를 2005년 개척 때부
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아빠, 우리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이상 비
아토르), 『난 당신이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이상 IVP),
『묵상과 일상』(성서유니온선교회)이 있다.

연 재
순 서

1회 :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생활

3회 : 가정의 중심축

*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회 : 알고 보면 모두 아프다

4회 : 먹고 놀고 쉬는 곳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어느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절실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바라는 기도 제목으로 시작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섭리) 안에서 결혼이 성사되곤 합니다. 각자 자신이 의도하고 준비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이 이루어지지요.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거나 제 편에서 억지 부리지 않아도 모든 일을 하나님이 순적하게 이루어주셨습니다. 가난에 찌든 성장기를 통과하여 생존욕구가 강한 제게 유순하고 말이 적은 아내를 보내주셨지요. 저 같은 사람이 그녀에게 받아들여지다니요! 결혼이 기적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였습니다.

결혼생활 7년쯤 지났을까요. 권태기가 찾아왔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아내를 관찰하고 아내 이야기를 들은 상담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사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여성입니다. 만일 목사님이 사모님의 진심을 듣고 싶다면, 퇴근해서 두 시간 동안 청소를 하고 가만히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함께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정중하게 사모님을 주목하면 그때 사모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주저 없이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답답하게 기다립니까? 할 얘기가 있으면 서로 빨리빨리 용건을 말하면 되지요!”

그 상담 선생님 얘기대로 제 아내는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욱해서 눈을 부라리면 아내는 할 말을 꿀꺽 삼킨 채 내뱉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답답하게 느껴져서 “주님, 왜 이런 여자를 주셔서 저를 괴롭게 하세요”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따진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에 어안이 병병해졌습니다.

‘병년아, 세상의 절반이 여자다. 그러니 네가 네 아내를 잘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앞으로 목회를 잘하게 될 거야.’

지금 돌아보면 제 무모함과 무례함을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으로 이해하고 용납해준 아내에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히 고백할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셨지요. 서로 사랑하며 돌봐주라고 서로 다른 우리를 한 몸이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삶의 울타리와 안전판: 하나님의 말씀

1995년 11월 11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딱 1년을 교제하고 결혼했지요. 데이트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저는 딸만 둘 있는 집 맏사위가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저는 (박창운 목사님과 같은 선교단체 출신으로)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캠퍼스 사역자였습니다. 아내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장애인 조기교육실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례는 박했지만, 우리의 만남은 행복했고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식사비도 안 되는 하객들(학생들)로 봄비는 결혼식을 치르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실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저는 자매 집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늦은 시간 데이트를 하고 자매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저를 보고 자매 부모님들이 사정을 딱하게 여겨 집에서 자고 가라고 허락하셨지요. 양가 어른들로부터 이미 결혼 허락은 받은 우리는 결혼 전까지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양가의 공식적인 결혼 허락이 저희 커플에게 성적인 유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혹 앞에 무너지질 순간들이 있었지만, 거둬거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 기간을 통해 결혼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킴으로써 절제를 배우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로 이끌리는 감정보다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넘어서려는 우리의 미숙한 감정을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시킴으로써 말씀이 우리 자신과 결혼생활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저희 삶의 안전판이 되어주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한 몸 된 결혼생활로 평안히 인도해주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생활 27주년을 맞이합니다. 강산이 세 번 바뀔 정도로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57세, 아내는 52세입니다. 결혼 후 10년은 건강하게 살았으나, 그 후로는 병들어 꼼짝 않고 누워 있는 아내를 돌보는 보호자로 살아왔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게 아내 병간호에 드는 비용만은 아닙니다. 지난 17년 동안 홀로 세 자녀를 키우고 돌봐야 하는 ‘엄빠’(엄마이자 아빠) 역할에 지치기도 합니다. 뒤죽박죽인 삶으로 인해 교회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의미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아내를 병간호해온 17년의 지루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전혀 바라지 않았던 아픔이 저의 40대를 집어삼켰습니다. 부부관계가 한창 자라야 할 중년의 시기에 저는 아내를 아기처럼 돌봐야 했지요.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쌍방 대화가 자연스레 사라져갔습니다. 부부는 서로 동등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성장해갑니다. 하지만 질병이 제의 40대를 멈춰 세웠고 깊은 어둠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기나긴 침묵이 저희 부부의 삶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분마다 하나 같이 제가 고통에 대해 웬만큼 아는 듯이 여깁니다. 글쎄요. 고통을 오래 겪었으니 조금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삶에 대한 이해는 깊지 못합니다.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하는 연합이 부부관계의 힘이자 특징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의 투병 생활을 통해 부부의 삶을 이해하기보다는 병들고 약한 자를 돌보기에 부적합한 제 인격을 자꾸만 깨닫게 됩니다. 이는 어찌면 질병을 통해 경험하는 특별한 은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문득문득 부부의 삶이 아닌 보호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물론 저는 세 자녀의 보호자(부모) 역할을 감사히 여기고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러나 아내에 대해서조차 보호자 역할을 강요받는 상황은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보호자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같은 배우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살기를 열망합니다.

가끔은 재혼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기는 지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 미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느라 현재 삶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재혼을 생각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제가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전히 미래를 염려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현재의 고통을 수용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에 있습니다.

가끔은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 헌신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병든 아내를 돌보며 채워지지 않는 욕구불만에 휩싸이거나 일상적인 수면 부족으로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늘 부족한 재정에 건강까지 잃어가는데도 살다 보면 살아지는 삶이 그저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한 몸 된 부부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하나 됨이 부부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은 성별·인종·계급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

거듭난 성도들에게 결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하나 되는 원대한 구원의 영광에 대한 유비일 뿐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주님의 연인’이라고 자주 부르곤 합니다. 아내의 이름(서주연)에서 따온 별칭입니다. 언젠가는 저를 ‘주님의 연인’과의 결혼생활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 병년아,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가 내 앞에 왔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려 합니다.

“제 나이 마흔 살부터 이제까지 아내를 돌보다 오늘에야 아버지 앞에 왔지요.”

제 대답을 듣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심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다면 원이 없겠습니다. 제가 칭찬을 듣는다면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배우자를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아내를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서투릅니다. 서툴러서 때로 괴롭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워낙 자기 욕구 채우기에 골몰하다 보니, 아내를 돌보는 마땅한 일을 하는데도 칭찬을 듣곤 합니다. 아내 돌보는 일이 원수 사랑의 수준이 아닌데도 말이지요.

배우자 한 사람이 죽으면 결혼생활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결혼생활이 끝나도 성도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은 성도의 삶을 이루는 한 부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게 결혼생활은 성도의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과정의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서툴고 부족하지만, 현재의 결혼생활에 더욱 충성되이 임하려 합니다. 더하여, 성도로서의 삶의 부르심에도 부단히 신실하게 응답하려 합니다. | **물길동상**

기독교 세계관으로 영화읽기¹⁾

영화 보기[1] 가벼운 몸 풀기



대구제일교회
박창운 위임목사

아주 오래된 영화 하나를 언급하는 것으로 여러분과의 대화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괴물>. 2006년에 제작된 이 영화는 한국의 스릴러물을 한 차원 높인 수작으로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 영화를 처음으로 택한 것은 평론가도 인정하는 작품성을 지닐 뿐 아니라 천만 이상이 관람할 정도의 대중성도 확보하였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2019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²⁾ 탄생시킨 토양과도 같은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독교 세계관으로 영화 읽기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



1) 박창운 목사님은 풀러신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영화 읽기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셨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화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이를 어떻게 제대로 보고 평가하고 삶에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쓴 그 내용을 몇 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길 것이다. 아울러 좋은 영화, 생각할 영화도 함께 글 속에 녹여 낼 예정이다.

2) 2020년 2월 아카데미 시상식으로부터 남보가 돌아왔다. 여기에서 <기생충>은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 영화상을 수상했다.

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많은 이들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영화를 본다는 말을 들을 때 의아함을 먼저 표현합니다. “영화는 보고 즐기면 되는 거지, 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 인해 골치 아파해야 하죠? 영화란 일상에 쌓인 스트레스를 한껏 날려 버리기 위해 보는 것인데 말이죠.” 이러한 말속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영화는 분석하면 재미가 반감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를 더 깊이 보면 볼수록 영화에 담겨있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그렇게 보이는 것을 통해 영화와의 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영화를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이 주제와 관련해 가볍게 몸을 푼다는 의미로 영화를 어떻게 읽어내는지를 <괴물>을 통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려 합니다. 영화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있는지, 숨겨진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는지를 알

아보는 것입니다. 즉, 영화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게 될 때야만, 그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응답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봉준호의 <괴물>을 보면 가장 먼저 놀라운 점 하나가 보입니다. <괴물>은 영화 장르상 스릴러에 속합니다. 특히 괴물이 나오는 영화라면 으레 사람들은 괴물이 사람을 죽이고 헤치며 잡아먹는 장면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화 <괴물>은 그런 우리의 예상보다 크게 벗어납니다. 도리어 이 영화는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인간의 상태보다는 사람이 사람을 먹이는 장면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괴물에게 먹히는 것이 주가 아닌, 서로를 생각하며 먹이는 것! 이것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³⁾ 이상하지 않나요? 괴물을 타이틀로 한 영화에 괴물이 사람을 먹어 치우는 것보다, 사람이 사람을 먹이는 장면이 더 주를 이룬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 <괴



3) 영화 초반의 영호, 고아 중 형으로 나오는 세준, 방역하는 사람. 이렇게 세 장면에 괴물에 먹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영화 속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장면이 사람이 사람을 먹고, 또한 먹고곤 장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특히 서로를 먹여주는 것의 결정적인 대목은 엔딩 장면에서 강두가 세준을 먹일 때인데, 이를 통해 감독은 영화 <괴물>이 ‘괴물에게 먹힘이 아닌, 서로를 먹여 주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을 장르적으로 엄격히 평가하면 스릴러 물이 되겠지만 사실은 스릴러를 차용한, 서로를 먹이고 사랑하고 지키는 “가족 영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군이 한강에 무단 방류한 폐기물들이 매개가 되어 괴물은 생겨납니다. 이에 온 세상은 발각 뒤집히고 혼돈의 연속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화는 세상을 향하여 날카로운 비판의 말들을 관객들에게 걸어옵니다. “충체적인 국난이 일어날 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영화 내내 방역 당국을 위시한 이 땅의 공권력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도리어 애꿎은 시민들만 곤혹스럽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적인 예시로 몇 장면을 소개하면 방역 당국이 합동분향소에서 한 일과 할아버지 희봉이 손녀 현서를 찾아 나설 때 검문소를 통과 하는 장면이 그러합니다. 특히 검문소를 빠져나오는 씬에서 할아버지 희봉은 돈을 찢어주는 나름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검문소의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



는 공무원의 부패와 더불어 이 세상에 만연한 “돈이면 다 돼!”라는 생각에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영화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경찰에게 돈을 찢어주다가 낭패를 당하는 장면도 함께 넣어둡니다. 그리고는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되던가요?”라며 관객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정부의 무능과 공무원의 부패를 보여주면서 이들이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영화는 말을 합니다. 나



4) 사실 그들은 일방적인 지시를 하고, 정부는 수동적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보건기구의 활동조차도 해결책이 아닌 혼돈만 부추김을 보여 줍니다.⁴⁾ 물론 “돈이면 다 돼”라는 “맘몬의 정신”으로도 이 땅의 혼돈을 해결하지 못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앞에서 스릴러물을 가장한 가족영화에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괴물에 끌려간 딸 현서를 구하기 위한 아버지 “강두”의 노고와 또한 온 가족이 힘을 합쳐 괴물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한강 매점을 운영하는 일과에서 강두는 아버지 몰래 동전을 모읍니



다. 또한 손님에게 온전히 내어놓아야 할 오징어에서 다리 하나를 슬쩍 떼먹기도 합니다. 강두란 사람을 솔직히 말하자면, 무언가 부족한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로 영화는 그려냅니다. 그런데 그가 방역 당국에서 행하는 과도한 마취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또렷이 유지합니다. 딸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엄청난 양의 마취제를 이겨내고 정신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부성애로 그는 딸을 구하러 나서고, 온 가족의 분투를 통해 결국에는 괴물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괴물>은 부성애, 가족의 사랑을 ⁵⁾ 강조합니다. 이러한 영화의 내용은 미국의 전형적인 할리우드식의 전개와 아주 다릅니다. 영웅이 나타나 언제나 나라를 구하는 할리우드식과는 달리 <괴물>은 모자라는 아빠 “강두”, 결정적인 순간 주저주저하는 고모 “남주”, 운동권으로 이미 사회에서 밀려난 삼촌 “남일”을 통해서 구원이 모색되고 이루어



5) 삼촌과 고모, 할아버지가 함께 나서 현서를 구하기 위해 나서고, 이를 통해 괴물을 물리칩니다.



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물>은 안티 히어로 무비의 형태를 지닙니다.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가족이 나서고, 그 가족의 사랑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영화 <괴물>을 한 번 더 볼 수 있다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내용을 생각하며 정말 그런가 하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2019년 <기생충>을 통해 세계에 보여준 봉준호 감독의 역량이 이미 영화 <괴물> 속에서 먼저 꽃 피웠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 영화의 메시지에 어떻게 응답하면 좋을까요? 우리 여기에서 희생적 사랑을 눈여겨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빠 강도와 가족의 헌신과 사랑”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것을 시도하진 않았지만,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영화를 읽을 것인가에 대한 출발점으로 영화를 이렇게 분석하며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글로부터 세계관으로 영화를 읽는 것에 대하여 차근히 함께 알아가 보려 합니다.

영화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늘 우리의 삶이 담겨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영화를 보며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에 대하여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더 거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음성을 또한 듣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출판동상**

우리지역 문화·공연 활동 소개



대구시립국악단 제205회 정기연주회 _ 젊은 명인전 <시간 여행자들>

개최일자 2022. 04. 14(목)
공연시간 19:30
개최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입장 (미취학 아동 입장불가)
러닝타임 약 90분
공연문의 053-606-6193 / 6320
주최 대구문화예술회관 / 대구시립국악단



프랑스 메츠국립오케스트라 내한공연

개최일자 2022. 04. 29(금)
공연시간 19:30
개최장소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능
공연문의 053-250-1400 (ARS 1번)
주최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시립교향악단 제485회 정기연주회

개최일자 2022. 06. 17(금)
공연시간 19:30
개최장소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러닝타임 약100분
공연문의 053-250-1475
주최 / 주관 대구시립예술단 / 대구시립교향악단

우리지역 문화·공연 활동 소개



DSAC 창작뮤지컬 '월곡'

개최기간 2022. 06. 23(목) ~ 06. 25(토)
 공연시간 19:30
 개최장소 달서아트센터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입장 (미취학 아동 입장불가)
 공연문의 053-584-8968
 주최 (재)달서문화재단



대구문화예술회관 특별기획전 《청출어람》

전시기간 2022. 04. 28(목) ~ 2022. 06. 11(토)
 전시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1 ~ 5전시실
 참여작가 서창환 김두호 박중식 노중기 문순만 이장우 노태웅 이기성 김봉천
 전시주최 대구문화예술회관
 관람시간 10:00 ~ 12:00, 13:00 ~ 18:00 (입장 오후 5시까지)
 관람문의 053-606-6114 (대구문화예술회관)
 정기휴관 매주 월요일



대구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나를 만나는 계절》

전시기간 2022. 01. 25(화) ~ 05. 29(일)
 전시장소 대구미술관 2, 3, 4, 5전시실
 참여작가 서세옥, 최만린, 권정호, 팀 아이텔, 이태호, 최학노, 한운성 등 38여명
 전시내용 인간에 대한 고찰에서 출발하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이야기를 계절에 비유하고 그것을 대구미술관 소장품을 통하여 살펴보는 전시
 전시규모 대구미술관 소장품 중 회화, 사진, 조각, 뉴미디어 등 93점
 관람시간 10:00 ~ 18:00 (입장 오후 5시까지) 관람문의 053-803-7900 (대구미술관) 정기휴관 매주 월요일



마스크 속의 구강건강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지난 2년 이상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그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입 냄새를
맡게 되어 놀라거나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 근 배 장로
(의료선교부 부장,
전 경북대 치대학장)

구취 또는 입 냄새란 입을 통하여 나오는 호기의 냄새입니다. 일반적으로 호기의 냄새 중에서도 주위 사람이 불쾌하게 느끼는 나쁜 냄새입니다. 마늘이나 양파를 먹어도 일시적으로 그런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아침 기상 직후에는 누구나 입안이 텅텅하고 구취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늘 마스크를 써야 하는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호기가 바로 코로 들어가므로 예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내 입 냄새를 맡게 되므로, 입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몸에 밴 담배 냄새를 잘 맡지 못하지만, 차를 함께 타거나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심한 담배 냄새를 맡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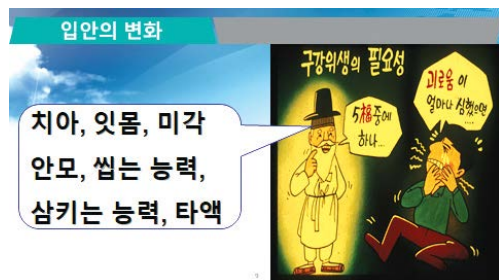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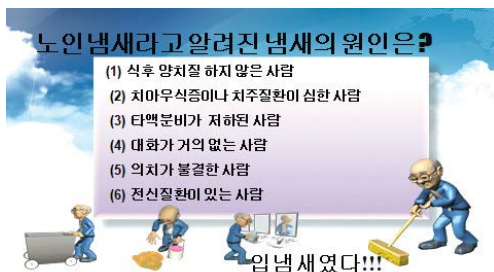
우리 몸에서 나는 체취 역시도 나는 못 느끼지만 다른 사람은 맡게 되므로 우리가 신경이 쓰이는 문제입니다. 나는 이도 잘 닦고 구강 관리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입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치주염이나 치아우식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치주염은 입안의 잇몸과 치아 주위 조직에 생긴 염증을 말하는데 염증이란 곧 부패를

의미할 수 있겠죠, 조직이 부패하면 단백질이 썩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또 충치가 커져서 구멍이 생기고, 그 속으로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 들어가 부패하면 그 역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 마스크를 하게 되면서 입과 코가 가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구강에 대해 예전보다 관심이 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스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치아를 더 열심히 닦아야 하겠고, 치아뿐만 아니라 치아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까지 구석구석 철저히 잘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구강 관리가 소홀해지면 입안에 세균이 증식하게 되는데 이들 세균의 작용에 의해 휘발성 황화합물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입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휘발성 황화합물로는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그리고 디메칠 설파이드 등의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 메틸머캅탄은 생선비린내 같은 냄새가 납니다. 입안에 *Porphyromonas gingivalis*라는 병원성 균주가 활성화되면 이런 메틸머캅탄 휘발성 성분이 증가하여 입 냄새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 쉬는 구 호흡하는 경우나 침 분비가 억제되어 입안이 건조해지는 구강건조증은 설태를 많이 만들고 따라서 입 냄새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 냄새의 원인은 크게 구강 내적인 요인과 전신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구강내 요인은 혀에 쌓이는 설태, 음식물 찌꺼기, 치주염, 불량한 틀니, 흡연 등이 있고 전신적 요인으로서는 당뇨나 폐와 간 질환, 만성 축농증과 같은 전신 질환과 공복 상태, 음주, 약물복용, 그리고 심리적 원인 등과 같이 수십 가지의 원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입 냄새의 치료는 관리와 상담, 그리고 검사를 통해 입 냄새의 정도와 원인을 찾아내고 구취 요인을 제거하여 계속 잘 유지하도록 관리해나가는 것. 개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구강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개선하는 것. 칫솔질 방법을 바꾸고, 빈도를 증가시키고, 치간 칫솔 등의 보조용품은 반드시 사용하고, 혀 솔질과 구강 양치액 등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을 바꿔야겠고 무엇보다도 치주병이나 충치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고 틀니 관리도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1950-60년대 우리 국민의 수명이 60세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는 정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라는 말이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균수명이 83세를 넘어가서 다음 세대에는 90세에 죽으면 조기 사망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시기도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잘 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강은 인체의 첫 번째 소화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가 빠져서 잘 씹지 못하면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저작을 통한 적절한 자극은 뇌로 가는 혈류를 잘 조절하여 뇌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이런 저작의 자극이 없으면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 분비가 저하되어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들의 치아 상실의 원인이 되는 잇몸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국민이 충치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은 경제 수준, 사회문화적 수준 그리고 구강 건강 상태 등이 많이 향상되어서 충치는 예전보다 줄어드는 반면 잇몸병은 오히려 증가하여 성인들의 치아 상실의 가장 큰 원인 질환입니다. 잇몸병은 치아를 잘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아주위 특히 치아 사이사이의 잇몸까지 깨끗이 닦고 마사지하고 잘 관리해야만 가능합니다. 칫솔 하나만으로 올바른 구강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칫솔을 보조하는 치간칫솔이나 치실 및 구강 양치액 등의 보조용품을 반드시 사용하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혀를 닦는 혀솔기도 꼭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출처: 건강다이렉트



사랑하고 배려하면 장수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계 3:15).



김홍석 은퇴집사
(김신요양병원 원장)

최근 기네스북에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록된 영국인 퍼시 애로 스미스(105세)와 플로렌스(100세) 부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였던 플로렌스는 1925년 6월 1일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다섯 살 연상의 청년을 신랑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해로할 수 있었습니까?"

남편의 대답, "항상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라고 말했지요." 아내의 대답, "저는 남편에게 늘 '여보, 미안해요'라고 말했지요." 이 부부는 평생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전날 아무리 다투더라도 아침이면 사랑으로 용서하고 새로운 날을 맞았습니다.

이 부부가 삶을 통해 실천한 성경 말씀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엡 4: 26 ~27)입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면 장수합니다. 사랑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키며 아울러 영적 면역력도 높여 줍니다. 사랑과 배려 이것만이 평생 행복한 삶을 지켜주는 명약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 1).

어떤 일에서 결과나 판도를 통째로 바꿔 놓을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나 인물, 제품, 서비스 등을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줄 게임 체인저를 기다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지친 사람들은 게임 체인저로 더 강력한 백신과 치료제를 갈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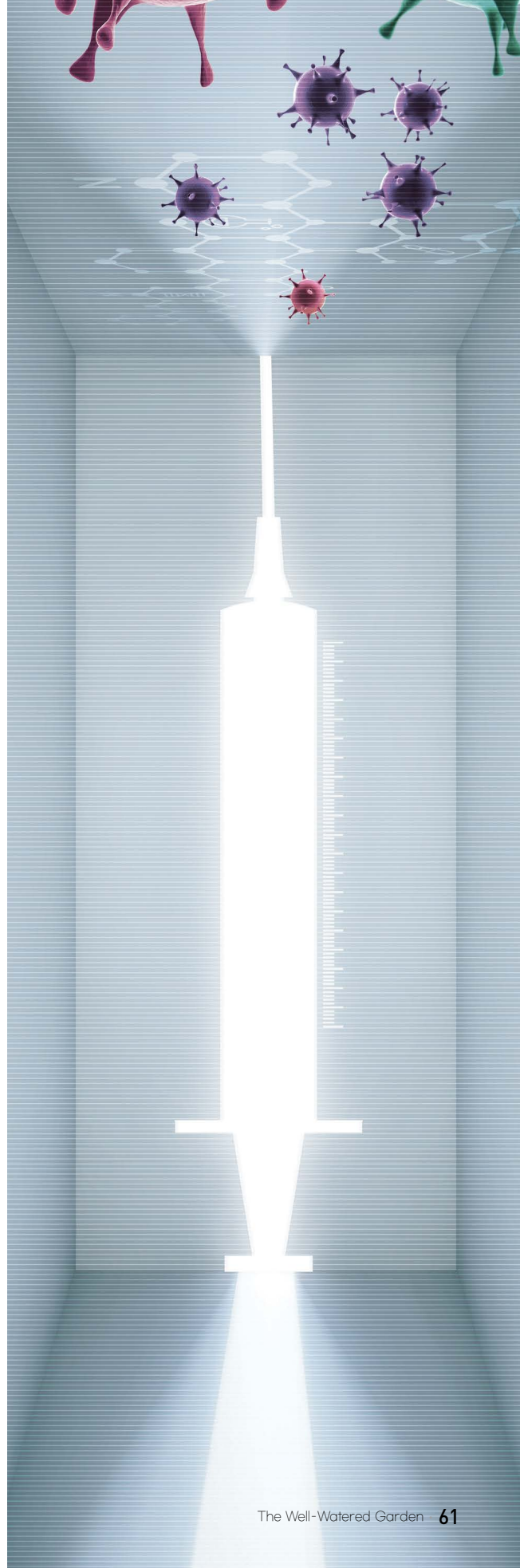
그런데 그보다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꿔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게임 체인저로 오셨

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진짜 게임 체인저이십니다. 어떤 백신보다 더 확실한 영적 백신입니다. 영적 면역력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왜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살롬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공공건물에 들어가려면 입구에서 반드시 체온을 체크하고 마스크를 써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정상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체온이 낮으면 각종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커서 체온이 낮은 고령자나 환자들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의 신앙 온도는 몇 도일까요?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인해 신앙 온도가 미지근해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신의 암세포를 제거하는 새로운 백신 치료법이 개발

1회 주사로 전신의 암세포를 제거하는 새로운 백신 치료법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원래의 암세포뿐 아니라 전이된 암세포까지 모두 제거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최근 극미량의 백신을 주입한 쥐에서 모든 암세포가 제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1회의 백신 주입만으로 몸의 면역체계가 체내에 존재하는 모든 암세포를 공격하는 원리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종양에 직접 두 가지 면역물질을 주사하자 즉시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Pixabay 종양학 교수인 로날드 레비(Ronald Levy) 박사는 "두 가지 면역물질을 함께 주입했을 때, 전신에 걸쳐 종양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 치료법은 각 종양 특유의 면역 대상을 확인할 필요도, 전반적인 면역체계 활성화나 환자별 면역세포 조율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백신은 암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면서도 여타 치료법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은 없다고 합니다.

전신에 나타나는 놀라운 효과

레비 박사는 "두 면역물질을 아주 극소량, 단 한 번만 주입함으로써 종양에서만 면역세포가 작용하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쥐의 경우, 몸 전체의 종양이 제거되는 등 그 효과가 전신에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고안해 낸 치료법은 면역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양 특이 T 세포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T 세포는 원래 암세포에 존재하는 비정상적 단백질을 찾아내어 공격하지만, 종양의 크기가 커지면 T 세포의 활동은 억제된다고 합니다.

레비가 주입한 두 면역물질은 짧은 DNA 가닥으로 주위의 면역세포와 작용하여 T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수용체를 증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항체가 증식된 수용체에 붙어 T 세포를 활성화하면, 활성화된 이 T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레비 박사는 "T 세포가 인식하고 있는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 없이 특정 암세포만 공격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활성화된 T 세포는 원래의 암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세포 까지도 찾아내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의 이 같은 백신 치료법은 현재까지 비록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만 이루어졌으나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90마리의 쥐 가운데 87마리의 암이 치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마리 쥐는 암이 재발하였으나 두 번째 백신 투여로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레비 박사는 저등급 림프종을 앓고 있는 환자 15명을 실험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실험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온다면 다양한 종류의 종양 치료에 이 백신 치료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멸동상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본 지면의 광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하는
교우들을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기획된 무료광고입니다.

비비드 **비비드** 여성류류 전문점

최연식 성도 / 대표 010-9600-1721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 메트로상가

C603호 (반월당 메트로상가)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 휴무



현대
백화점

동아
백화점

C603호

비비드



윤드림 가죽공방

배운정 성도 / 대표

010-5453-4163

대구 중구 서성로44, 1F

일요일 휴무



성경 커버



윤드림 가죽공방

대한축기사

서성네거리

센트럴시티
오피스텔



잠북카페

커피, 차, 스콘



이우형 집사 / 대표 010-9197-1160
대구 달서구 월배로 11길 33, AK 그랑플러스
301동 상가2층 205호
일요일 휴무



잠북카페
AK 그랑플러스
301동 205호

국민
은행

진천역



국수방

국수와 보쌈 전문점 (구, 대구백화점 옆 골목)



진시홍 집사 / 대표
동성로점 : 대구 중구 동성로6길 17-1
(중앙로역 2번출구 450m)
053)423-8484
신천역본점 : 대구 동구 송라로 87 성동빌딩
053)423-1122
월~토 11:30~20:00 / 일요일 휴무

**국수방
동성로점**

2,28기년
중앙공원

● 엔제리너스

● 할리스커피

무료광고 접수

홍보출판부 _ 카톡 010-3542-9293 또는 fpc0001@daum.net

앞산 손메밀묵집



한연아 집사(이종연) / 대표
010-3529-1486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423-3
예약/문의 : **053-654-1375**
09:00~20:00 / 연중 무휴 / 무료주차

**앞산 손
메밀묵집**

골프존파크
[구 화이트케슬]

앞산 순환도로

충혼탑→

BN
Bona beauty

보나뷰티

스킨케어 / 자연눈썹 / 아이·헤어라인
속눈썹펌 / 더마플레닝 / 패디플레닝

유혜정 집사/ 대표 **010-5355-8476**
대구 중구 대봉동 동덕로60-13 토마토상가 1층
경대병원역 3번출구 도보5분거리
10:00~20:00 / 일요일 휴무 / 100%예약제

open.kakao.com/o/s8SCIM4d

bona_beauty_



경대병원역

토마토상가
1층

보나뷰티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본 지면의 광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하는
교우들을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기획된 무료광고입니다.

제 96호 성경퀴즈 정답

글	루	히			바	보
롭		브	루	기	아	
		리			사	게
여	호	사	바	드		
둘		람		빌	립	보



물댄동산 제 96호 성경퀴즈 당첨자

- | | |
|---------------|----------|
| 1 이경옥 권사 | 6 김효진 집사 |
| 2 오선자 사모 | 7 백은정 집사 |
| 3 박은유 초등2부 학생 | 8 박성법 집사 |
| 4 김은교 목사 | 9 박은서 학생 |
| 5 김문정 집사 | |

* 당첨자는 행정실에서 문화상품권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성경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행인 박창운
지도목사 임병철
부장 양홍철
부부장 허군열
총무 이상원
회계 안지현
편집장 양홍철

편집총괄 허군열
편집위원 최무진, 이영숙, 김승훈
이주하, 이경호, 김원진
스튜디오 우제오, 박효운
발행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제일교회 홍보출판부
전화 (053)253-2615~7

팩스 (053)253-2618
주소 대구시 중구 국제보성로
102길 50(동산동)
발행일 2022. 4. 3
홈페이지 www.firstch.org
이메일 E-mail_fpc0001@daum.net



대한예수교
장로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정기예배 및 집회 시간

집회별	시 간	장 소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7:30	대예배실
	2부 오전 9:30	대예배실
	3부 오전 11:30	대예배실
	4부 오후 2:00 청년예배	본당지하 아담스홀
주일 오후 예배	오후 3:00	대예배실
수요1부 예배	오전 10:30	대예배실
수요2부 예배	오후 7:30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오전 5:30	100주년 기념관(4층)
금요기도회	오후 8:00	본당지하 아담스홀
구역장회	(화)오전 10:00	본당지하 아담스홀

기관명	시 간	장 소
영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2층)
유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3층)
유 치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3층)
초 등 1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6층)
초 등 2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7층)
초 등 3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4층)
초 등 4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6층)
중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 아담스홀
고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 베어드홀
청 년 1 부	오후 2:00	본당지하 아담스홀
청 년 2 부	오후 2:00	본당지하 아담스홀
청 장 년 부	오후 1:20	100주년 기념관(2층)
장 년 부	오전 10:40	대예배실
새 가 족 부	오전 10:40	새가족부실(본당2층)

방송설교

극동방송 라디오(FM91.9)

예배실황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7시~7시 40분까지

CBS방송설교

매주 주일 오전 8시 30분~8시 50분



기쁨과 행복을 만들고 은혜를
나누는 홍보출판부

물댄동산 제98호 원고 모집안내

원고 내용

삶과 신앙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고 느낀 일, 행사 참관기, 간증, 부서활동보고 등 전 교인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시, 수필 형식의 글

제일 논단 기독교, 교회, 신앙과 관련된 다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글 (필요시 참고문헌 기입)

기 타 '물댄동산'에 게재하고 싶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글, 사진, 그림 등

나도 한마디 010-3542-9293(문자·카톡접수)

칭찬 한마디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익명으로 실습니다. 토브상자에도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접수합니다.

원고 분량

A4 1.5페이지 이내, 바탕체, 글자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0

접수 마감

2022년 5월 29일(주일) 까지

제 출 처

E-mail: fpc0001@daum.net



또는 홍보출판부(본당4층), 행정실
카톡접수 : 010-3542-9293(총괄편집담당)
※ 이메일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유의 사항

원고 접수 시, 필자의 프로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시고 원고 관련 사진이 있을 경우, 함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접수시 필자의 성함 및 직분, 제목,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바랍니다.

원활한 출판을 위하여 원고의 일부 편집 및 교정·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부 심의를 거쳐 다음 호에 게재되거나, 출간 목적에 부적절할 경우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단동산은 대구제일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구제일교회 청년부 품공동체
봄수련회 포스터
그림 _ 30기 광지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Since 1893. 4. 22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50 (동산동)

Tel : 053-253-2615~7 Fax : 053-253-2618

E-mail : fpc0001@daum.net www.firstch.org